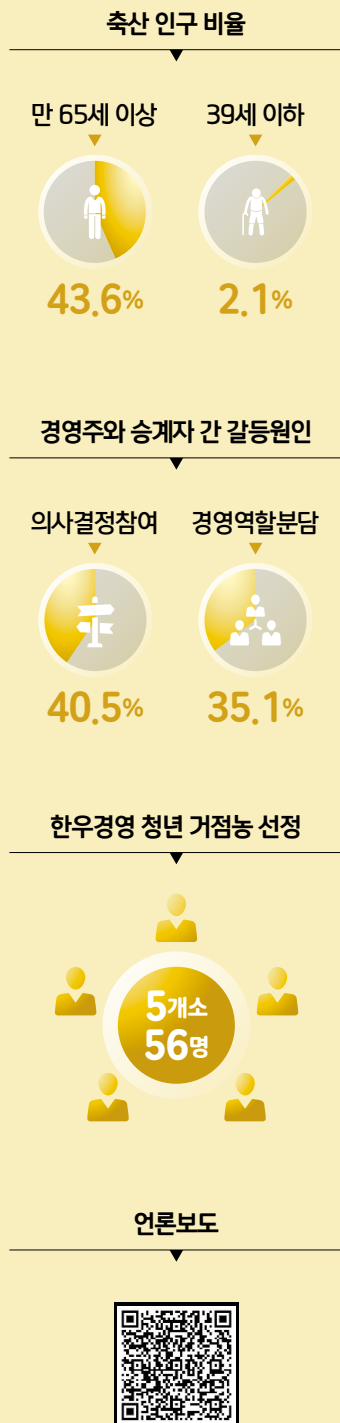


축산 후계인력 양성

한우경영 청년농 육성을 위한 현장애로 해결 및 신기술 보급

축산분야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3%에 육박하며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 국립축산과학원은 한우 경영 청년농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한우경영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을 선정하고 ‘청년목우’ 서포터즈 SNS를 운영하는 등 경영주와 승계자 간 갈등해소를 통한 영농 안정 정착과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



연구배경

- **[현 황]** 축산경영 농가의 고령화와 후계농 부족에 따라 후계인력 양성 필요성 증가
 - * 축산분야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: 43.6%, 39세이하: 2.1% 수준('20)
- **[필요성]** 한우 경영 청년농의 조기 정착을 위한 후계 인력 양성 및 경영주와 승계자 간 갈등해소 해결책 필요
 - * 갈등원인: 의사결정참여(40.5%), 경영역할분담(35.1) 등('20)

개발성과

- **[거점지역 육성]** 한우경영청년농 축산신기술 지원체계 구축
 - (공모) 한우경영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거점지역 공모 및 선정
 - * 청년농현황(5개소, 56명): 충북도원(11), 울산(9), 횡성(15), 영광(10), 신안(11)
 - (협약) 축산원-거점지역 농촌진흥기관과의 협약 체결('21. 8.)
 - (운영) 강의식·토론식 교육 및 현장실습 등 지역 거점별 맞춤형 컨설팅 추진('23)
 - (홍보) '청년목우' 서포터즈의 SNS 운영으로 성과 확산

파급효과

- **[사회적효과]** 갈등해소를 통한 문화·사회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
 - 지역 농정과의 연계 및 청년 세대의 농업·농촌으로의 유입으로 영농 안정 정착과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조성

